

문화소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시발점이란 첫 출발을 하는 지점.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실패와 시작 앞에 놓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출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본이 되어버린 수많은 자격증과 다국어 능력. 그리고 기업 서포터즈와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는 이력서에 영향력 있는 한 줄이 됩니다.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어디에도 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쉼을 낭비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시발점으로 밀어붙이며 살아가는 것, 고통과 단단함의 간극 사이에 놓여 우리는 항상 머뭇거립니다. 어떤 방향이든 정답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와 다르게 머뭇거림 앞에서 선택 쉼을 선택한 여자,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의 이야기를 들려 드려볼까 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 인기 만화가 이가라시 다이ске의 원작 만화를 토대로 영화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일상에 지쳐 고향에 내려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이 만든 `음식`에 집중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연출을 맡은 임순례 감독님은 인물의 스토리와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여 각색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요즘, 관객들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휴식 같은 영화를 선물하고 싶어 연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혜원은 시험, 연애, 취업, 모든 시작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시골집으로 돌아오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직접 키운 농작물로 끼니를 만들어 먹으며 사계절을 맞이하고 고향 친구들과의 허심탄회한 수다를 나눕니다. 잠깐 있다 간다던 혜원은 일 년 동안 고향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숲을 마련해 보아요.

숲은 포식자를 피해 동물들이 숨기 좋은 공간입니다. 혜원에게 시골집은 그녀만의 작은 숲입니다. 혜원의 가족은 혜원이 아주 어릴 적 큰 병에 걸린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도시에서 시골로 오게 됩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혜원의 엄마는 도시로 돌아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딸인 혜원에게 작은 숲을 마련해주고 싶었다는 혜원의 엄마.

어릴 땐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을 혜원은 성인이 되어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을 때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지칠 때마다 웅크려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잠시 쉬어갈 공간이 있다는 것만큼 안정적인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삶이 지칠 때, 누군가가 미울 때, 잠시 쉬고 싶을 때 문득 떠오르는 자신을 위한 유일한 공간이 있나요?

시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시작 묻고 더블로 고민까지 가!’ 게임처럼 쉽게 진행되는 인생이 아니기에 더 신중해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지나가며 공격 아닌 공격을 할 때 잠시 동안 쉴 수 있는 자신만의 작은 숲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청춘이란 아주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치열한 일상에 지쳤던 적이 있을 겁니다. 문득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테고요. 지칠 대로 지친 마당에 잠시 쉬어갈 만도 한데 쉬면 누가 위협을 가하기라도 하는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게 요즘 청춘입니다. 잘하고 있을 걸까, 평생 이렇게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여 있곤 합니다.

영화 끝물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양파가 자라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인데요. 양파는 모종심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두었다가 발로 잘 밟고 건조와 비를 피해 명석을 열흘 정도 덮어주었다가 싹이 나면 걷어냅니다. 싹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워서 미리 거름을 준 밭에 심는데 이걸 아주심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완전하게 심는다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방황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심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또한 고통만이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고 쉬는 것도 완전함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완전함을 위해 달려갑니다. 실패든, 어중간한 성공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자주 여유를 가지고 잠시 쉬어가는 것, 그게 시작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요?